

외신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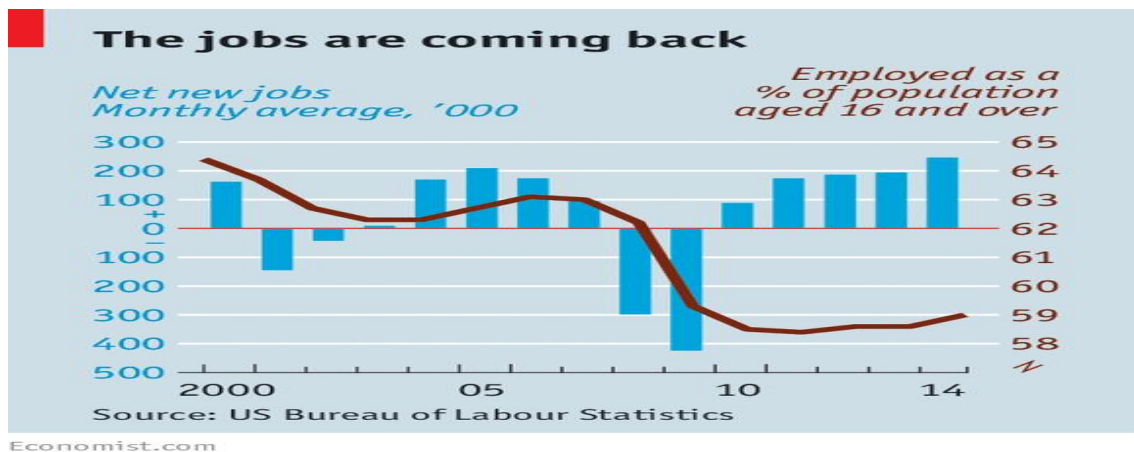
◇ The US Job Market, Economist('15.1.31)

* 실업급여 혜택을 줄인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

□ 미국 노동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음

○ '14.12월 기준 3백만명(전년동기대비)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은 1.1%p 낮아졌음

* 구직자중 채용비율이 '09년에는 1:7이었으나, '14.11월말에는 1:2 수준



□ 실업급여 혜택 기간을 대폭 축소한 공화당의 개혁조치*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

○ 당초 민주당은 동 개혁조치가 소득삭감에 따른 수요감소 및 구직 단념 등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

○ 그러나,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**에 따르면 실업급여 혜택기간 축소로 인해 약 1.8백만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었으며, 혜택을 대폭 삭감한 카운티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더 컸다고 분석

* '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연방 비상실업급여 제도(EUC :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)상의 53주간 실업급여 혜택을 25주로 단축

** "The impact of unemployment-benefit extensions on employment: the 2014 employment miracle?", M. Hagedorn et. al., NBER Working Paper

□ 그러나, 신규 일자리가 혜택기간 축소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시장 재진입보다는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람들로 채워진 것으로 분석됨

○ 이는 혜택이 아예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하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으며, 기업은 저임금의 장점을 활용하여 더 활발한 구인활동을 해 온 결과임